

# KIA '8회 10-3' 리드도 못 지켰다... 8점 헌납 충격패

키움전, 만루홈런 허용 10-11 패  
볼펜투수 4명 나서 볼넷 5개 남발  
올 시즌 총 19패 중 역전패 11번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리즈에서 2연승으로 워닝 시리즈를 조기 확정 지은 KIA 타이거즈가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다.

8회 10-3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10-11로 패배한 것. 올시즌에만 무려 11차례의 역전패를 당하면서 지난 시즌 막강했

던 KIA의 불펜을 더이상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KIA는 지난 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키움과의 원정 경기에서 10-11로 패배했다.

이날 경기에서 KIA는 지명타자로나선 김도영이 4타수 4타점, 대타로 나선 최형우도 3루타를 터뜨리면서 8회초까지 10-3으로 크게 앞서 쉽게 이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8회말, 계속되는 볼넷 남발과 만루 홈런을 허용하며 무려 8실점 하며 믿을 수 없는 패배를 당했다.

이날 8회말 수비는 최악 그 자체였다.

이닝 시작과 함께 교체된 투수 최지민은 9개의 공 중 8개를 볼로 던지며 송성문과 최주환을 볼넷으로 출루시켰다. 무사 1-2 루 상황에서 볼을 기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 김건국은 야시엘 푸이그에게 안타를 내주며 끝내 무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이어 카디네스에게 땅볼을 유도해 1사를 이끌어냈지만, 임병욱에게 1타점 적시타를 맞으며 10-4가 됐다. 6점이나 앞선 상황에서 김건국은 김태진에게 만루 홈런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경기는 10-8, 접전으로 변했고 KIA는 부랴부랴 필승조 조상우를 급하게 올렸

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몸을 풀지 못한 듯 조상우는 1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막아냈지만, 2명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다시 1, 2루를 허용했다. 위기 상황에서 등판한 KIA의 마무리 정해영은 송성문에게 볼넷을 내준 뒤 최주환에게 3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역전을 허용했다. 8회에 투입된 투수 4명이 던진 공은 총 50개로 31개가 볼로 볼넷만 5개였다.

KIA 불펜이 한 이닝에 8실점을 하며 역전을 당한 것은 올시즌 들어 처음이다. 지난 시즌 평균자책 4.98 리그 3위로 준수했던 KIA 타이거즈 불펜은 8일 기준 평

균자책 6.23으로 KBO리그 구단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평균자책 2점대는 정해영(2.25) 뿐이고, 윤준현(3.00), 조상우(3.38), 전상현(4.30), 이준영(4.50), 최지민(4.50), 김건국(10.24) 순이다. 선발투수가 내려간 뒤 불펜에서 항상 실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KIA는 개막 이후 19번의 패배 중 11경기가 역전패다. 불펜 투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KIA의 가을 야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 KBO "피치클록 도입 후 프로야구 경기시간 13분 단축"

7일 기준 평균 경기 시간 2시간57분

올 시즌 프로야구에 피치클록을 도입한 후로 한 경기 소요 시간이 지난해보다 약 13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시즌 정규리그 평균 경기 시간은 2시간 57분으로 2024시즌(3시간 10분)보다 크게 줄었다.

3시간 30분 이상 소요된 경기는 13경기로 전년도 동기(36경기)와 비교했을 때 절반 아래로 감소했고 2시간 30분 미만의 경기는 7경기에서 15경기로 증가했다는 게 KBO 설명이다.

앞서 KBO는 지난해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을 도입해 양 팀의 불필요한 항의 시간을 줄였고, 올해엔 투수 및 타자의 준비 동작에 시간제한을 두는 피치클록도 적용했다.

피치클록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2023시즌 도입한 제도로, 경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투수 및 타자의 준비 동작에 시간제한을 두는 것이다.

투수는 주자가 없을 때 20초, 주자가 있

을 때 25초 이내에 투구를 해야 한다.

타자도 적용 대상이다. 33초 이내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투수는 볼 1개, 타자는 스트라이크 1개 제재를 각각 받는다.

우려했던 현장의 피치 클록 적용 과정은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 클록 위반은 경기당 평균 0.4회로 2경기당 1번 이내로 발생하고 있다.

KBO는 피치 클록 외에도 기존 12회까지 치르던 연장전을 11회로 줄이는 등 올 시즌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올 시즌 투수들이 강한 면모를 보이는 '투고타저' 현상도 경기 시간을 줄이는데 영향을 준다.

한편 KBO는 리그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KBO는 퓨처스리그(2군)에서 시범 운영하는 체크 스윙 판독과 관련해 "올해 103경기에서 54건의 판독 요청이 있었다"며 "이 중 17건이 반복돼 반복률 3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 광주 수피아여중, 연맹회장기 농구대회 준우승

결승서 수원제일중에 49-68 패  
수피아여고, 온양여고 꺾고 결승

광주 수피아여중 농구가 2025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물며 대회 4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수피아여중은 8일 경남 통영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중부 결승에서 수원제일중에 49-68로 졌다.

수피아여중은 이날 제공권과 특정한 수비를 앞세워 수원제일중에 맞섰지만 패배하며 4년 연속 우승 도전이 좌절됐다. 수피아여중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2024년 이 대회 정상에 오른 바 있다.

1쿼터에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며 15-17, 2점 뒤진 채 마친 수피아여중은 2쿼터에서 추격에 나섰다 상대의 막강한 공격력을 막지 못하며 26-38 리드당한 채로 전반을 끝냈다. 3쿼터와 4쿼터에서도 경기력 열세를 보이며 끝내 19점 차 패배로 무릎을 꿇었다. 수피아여중 이주미는 우수상과 리바운드상을 수상했다. 이주미는 이번 대회 5경기에서 83득점(경기당 평균 16.6점) 98리바운드(평균 19.6개) 7어시스트 12스틸 13브록아웃을 기록했다.



광주 수피아여중 농구부 선수들이 8일 경남 통영 충무체육관에서 끝난 2025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에서 여중부 준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수피아여중 농구부 제공

광주 수피아여고는 시즌 2관왕에 도전한다. 수피아여고는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고부 준결승전에서 온양여고를 81-65로 물리치고 결승에 안착했다.

임연서와 송지후가 각각 24득점과 22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고, 김담희와 이가현도 각각 14득점과 13득점으로 힘을 보탤다.

수피아여고는 9일 오전 11시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결승에서 삼천포여고를 이기면 제62회 춘계중고농구연맹전에 이어 시즌 2관왕에 오른다. 최동한 기자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광주광역시 선수단 결단식**  
일시 2025. 5. 8.(목) 10:00 장소 광주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주광역시 선수단이 8일 광주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제공

##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광주시 선수단 결단식

육상 등 11개 종목 123명 참가  
금·은·동 20·동 18개 획득 목표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주광역시 선수단이 8일 광주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이번 결단식에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광주장애인체육 주요 인사들과 광주광역시 선수단 학생·교사·임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수영 조현찬과 역도 신선영은 선수단 대표로 나서 공정한 경쟁과 선전을 다짐하는 선서를 했다.

광주 선수단은 전국 선수들과 열띤 경쟁을 치러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광주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한다. 앞으로도 우수한 장애학생 운동선수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훈련할 수 있도록 본량중학교에 육상트랙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광주시 선수단은 총 123명(선수 76명, 감독·코치 23명, 임원 및 관계자 24명)이 육상 등 11개 종목에 출전해 메달 46개(금메달 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8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동한 기자

## 광주 율곡초 박선우, 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 준우승

남자 새싹부 단식 결승서  
인제SC 정다운에 6-7 석패  
복식선 권혁진과 조 이휘 3위

'광주 테니스 기대주' 박선우(율곡초 2년·사진)가 제29회 한국초등학교테니스연맹회장기 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 남자 새싹부 단식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선우는 지난 7일 전북 순창공설운동장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새싹부 결승에서 정다운(인제SC)과 치열한 접전 끝에 6-7(3)로 졌다.

박선우는 1라운드 박성원(명덕초)을 6-1로, 2라운드 김도원(양구초)을 6-0으



로, 8강전서 권혁진(용상초)을 6-1로, 4강전서 최윤성(청원초)을 6-1로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앞선 대회인 2025 키즈 라헨드로 테니스 페스티벌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자신감이 오른 박선우는 이날 결승 상대인 정다운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박선우는 경기에 들어서자 장점인 파워풀한 포핸드 스트로크와 좌우 코너에 볼을 넘기는 플레이로 상대를 공략했고, 정다운도 이에 맞서며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다. 박선우는 마지막 집중력에서 정다

운에 밀리며 결국 준우승에 만족해야만 했다.

박선우는 권혁진(용상초 2년)과 호흡을 맞춘 남자 새싹부 복식에서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박선우-권혁진 조는 8강전서 박성원-윤민규(약사초) 조를 6-1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강태빈(금남초)-최윤성 조에 4-6으로 져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박선우는 "단식 우승을 놓쳐 아쉽지만 준우승도 만족한다"며 "체력 훈련을 더 많이 하고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마인드 컨트롤에도 신경써서 다음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동한 기자